

해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조사

2018.06.11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독일 및 네덜란드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 과제명

-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출장기간

- 2018.05.27.(일)~2018.06.02.(토)

□ 출장지역

- 독일, 네덜란드

□ 출장자

- 이연희 책임전문원

□ 일정요약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1일차	2018.05.27 (일)	독일	이동		
2일차	2018.05.28 (월)	독일	Freiwilligenagentur Marburg-Beidenkopf e.V.	Doris Hein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자원봉사제도, 사회복지영역의 자원봉사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봉사대상자 선정 방법, 봉사 소요 지출 경비 조달 등에 관한 인터뷰
3일차	2018.05.29 (화)	독일	August-Stunz- Zentrum	Matthias Schmid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활동참여, 평가 등에 관한 운영 인터뷰
4일차	2018.05.30 (수)	네덜란드	이동		
5일차	2018.05.31 (목)	네덜란드	Vrijwilligers Centre Amsterdam	Leo Rietve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의 자원봉사제도, 사회복지영역의 자원봉사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봉사대상자 선정방법, 봉사 소요 지출 경비 조달 등에 관한 인터뷰
6일차	2018.06.01 (금)		이동		2018.06.02.(토) 도착

가. 자원봉사제도

1) 독일

- 독일의 자원봉사제도는 시민철학에서 출발하였음. 독일의 시민사회 기반(인프라)의 발전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는 “보조(subsidiarity)”와 “자치(self-governance)”의 원칙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중재와 관련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독일의 자원봉사는 공식 혹은 비공식단체의 일원으로 Freiwilligenarbeit(자발적 참여) 활동을 수행함.
- 독일은 국가 정부가 상위에 있고 그 밑에 지방정부, 그 아래에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단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보조(subsidiarity)의 원칙 때문에, 자원봉사의 개념은 19세기 "정치적으로 통제된 시민 참여"와 자발적 노동 투입에 대한 독일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독일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이 시기의 "Ehrenamt(명예사무소/일)"와 "ehrenamtliche Tätigkeit"이라는 독일어 용어는 자발적 참여보다는 "명예의 구성 요소, 공무원 및 공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음.
- 독일에서 자원 봉사의 역사와 전통에서 또 다른 핵심요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분단으로, 40년 동안 분단국가의 두 부분에서 자원봉사가 다르게 발전했다는 것임. 나치정권 기간 동안, Ehrenamt는 나치당에 의해서 독일 사회의 정치적 통제와 침투의 수단으로 널리 전파되고 고용되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조(subsidiarity)는 서독 사회정책의 초석이 되었고, 독일연방공화국(FRG, 서독)에서 공공-민간 관계를 통치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되었음. 이 과정의 일환으로 복지 부문의 6개의 "최고"협회 8개가 창설되어 연방 자원봉사복지단체연합회(Association of Voluntary Welfare Organisations)을 구성함. 서독의 거의 모든 NPO는 이러한 단체 중 하나의 회원임. 예컨대 Marburg 자원봉사지부는 베를린에 위치한 다흐반트(총연합)의 회원임.
- 지난 십 년 동안 190개가 넘는 지역사회재단이 설립되었으며, 하부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상위단체인 자원봉사센터가 공식적으로 전국에 300개 이상 있음.
- 두 독일 국가 간의 통일 조약의 결과로, 구동독은 1990년 10월에 FRG의 법적·제도적 제도를 채택하면서 사회 부문, 특히 자원봉사부문은 서독의 "peak"조직을 채택함. 서독의 기존 복지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서 자원 봉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상당한 공적 자금이 이 기관들에 할당되었음. 그 결과 네트워크와 상위 조직, 연합 재단 및 시민 참여에 기여하는 다른 조직 등을 포함하여 800개가 넘는 시민사회 기반시설이 독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독일의 자원봉사 3대 특징은 돈과 연결되지 않고, 공동체의식에서 출발,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해 본인이 결정하는 것임. 즉, “for others”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에서 출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에 따라 봉사를 하게 됨.

2)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자원 봉사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역사적 발전을 거쳤음.
- 자원봉사는 가족(사적)의 보살핌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보살핌으로 확대됨. 고아, 또는 아프고, 정신적인 환자를 돌보는 일은 중세 시대에 기독교 단체 (수녀원, 교구)에 의해 시작, 이후 개인(기독교 사업가)과 공공단체(지방 의회)에 의해 이어짐.
1965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자발적인 작업이 출현.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사회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급 근로자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됨.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더 큰 의견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단체의 설립을 이끌게 되었음.
- 네덜란드의 자원봉사제도는 자발적이고 무보수로 다른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공식기구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봉사는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 봉사단체는 약 25만개 정도가 있음.

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및 봉사자 매칭 방법

1) 독일

- 독일은 지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년들을 위한 부서가 있는데, 자원봉사의 기본정책은 이 부서에서 수립할 뿐만 아니라 기본 틀을 잡음. 시민단체들은 그 틀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됨. 그러나 시민정부의 자원봉사에 문제가 생기면 상부조직과 협의와 로비를 통해 해결하게 됨.
- 시민단체의 핵심역할은 봉사자가 왔을 때 흥미, 재능 등에 대한 인터뷰와 봉사에 관한 충고를 하며, 150개 정도의 봉사기관을 연결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함.
- 모든 봉사자가 단체를 통해서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단체로 와서 상담을 하면 최적의 그리고 적재적소의 봉사일감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옴. 특히 단체 홈페이지에 150곳의 봉사일감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오게 됨.
- 자원봉사가 필요한 복지시설은 한 해 동안 계획된 행사 스케줄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봉사자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1365포털이나 VMS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봉사시설은 반드시 봉사담당자가 있어서 그 봉사시설을 매칭시켜주면 시설에서는 봉사자와 봉사대상자를 연결해준다. 시설담당자는 시민단체 담당자의 면접내용을 가지고 봉사대상자를 선정함. 만일 시설에서 봉사자가 필요할 경우 시민단체에 연락을 취하면 단체는 봉사자의 희망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적당한 봉사자를 매칭시켜 줌.

2) 네덜란드

- 자원봉사센터는 각 시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음. 센터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봉사일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봉사자, 봉사단체, 봉사일감을 연결해주고 있음. 물론 센터 사무실로 찾아오는 봉사자를 상담해서 봉사일감을 매칭 시켜주기도 함.

- 웹사이트는 봉사자 정보, 일감 정보, 단체 정보, 스폰서 정보 등을 올려놓음으로써 양방향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시청의 역할은 기본정책을 만들고, 자원봉사 홍보지를 발간하여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함.
- 센터는 봉사단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스폰서 연결도 담당함. 단체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시키거나 시청의 지원을 조언함.
- 센터는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다. 봉사자 교육

1) 독일

- 봉사자 교육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특수영역에 한해서는 봉사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호스피스, 특수한 아이들·청년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등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정시간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함.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종류의 봉사는 다음부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준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이수하는데 4개월~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함. 대부분의 자원봉사는 1년 단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 길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남. 따라서 다양성을 고려해서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직장과 학교 공부 등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짧게 봉사를 할 수 밖에 없고, 농촌이라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가 대부분이라서 봉사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정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교육 내용은 봉사대상자들 및 문화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됨. 봉사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 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을 받음. 봉사종류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달라짐.
- 교육은 시민단체가 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담당함. 헤센주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16개 정도 있음.

2) 네덜란드

- 별도의 봉사자 교육은 없음.
- 자원봉사의 상당 부분은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조직에는 몇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특히 봉사자가 매우 까다로운 대상자와 함께 일할 때는 사회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함. 이러한 교육의 대부분은 The Volunteer Academy라는 조직에서 실시함.
- 특수한 영역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 유급종사자들이 투입됨. 자원봉사자들은 보편적인 봉사에 투입됨.

라.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자원봉사

1) 독일

- 독일의 자원봉사영역

- Sport and physical activity: 스포츠 및 신체활동
- Schools and nursery schools: 학교 및 보육원
- Church and religious organisations: 교회 및 종교단체
-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여가 및 사회활동
- Culture and music: 문화 및 음악
- Social welfare: 사회복지
- Accident, rescue and voluntary fire services: 사고, 구조 및 자발적인 소방 서비스
- Professional advocacy outside the workplace: 직장 밖 전문 변호(옹호)
- Politics and political advocacy: 정치 및 정치적 옹호(지지)
-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animal welfare: 환경, 자연보호 및 동물복지
- Youth work outside school and adult education: 학교 밖 청소년 및 어른 교육
- "Others" local civic activities: 기타 지역시민활동
- Health care sector: 보건의료 부문
- Justice and criminal sector: 사법 및 범죄 부문

- 독일의 자원봉사는 일반인을 위한 복지에 더 큰 관심이 많음. 그러므로 사회복지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봉사에 한정하지 않음.

- 독일은 스포츠부문의 자원봉사가 가장 활발함. 일반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육원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 수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구조 활동 등이 있음. 유치원, 학교, 주일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봄. 최근에는 난민을 위한 봉사가 활발한 편임.

- 독일의 봉사활동은 생활 속에서 봉사를 함께 하는 것이 특징으로써 공동체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속의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복지영역에서의 봉사로 보고 있음.

- 사회복지영역은 국가가 하는 것이며 정부단위의 봉사활동은 별도로 있고, 그 나머지는 시민단체 등에서 일반인의 복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추진함.

- 국가는 사회복지영역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세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해서 나이든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함.

-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졸업 후 대학진학 전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을 공동체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늘리고 대학 진학 시 가산점을 주고 있음.

- 나이든 사람들을 활용한 봉사활동 프로젝트로는 이웃돕기 운동, 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도록 안내하고, 조직을 이끌고,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 이런 활동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음. 예를 들어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을 모으고 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끌고 하는 일련의 활동을 중·장년층의 봉사자들이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개발 과정
 - 주 정부에서 봉사프로그램의 기본 틀이나 모델을 만들고, 주에 소속된 사회통합기구가 담당하며 주에 소속된 연구소가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독일 전체의 시민단체에서 기본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주 정부가 제시한 모델 중에서 시민단체가 실시하게 되면 비용을 모두 주정부가 부담하게 되고 프로젝트의 평가를 연구소가 담당함.
- 시설에서의 봉사프로그램 개발은 시설 입소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위험부담은 없는지, 이 사람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개발함. 시설의 프로그램은 재능을 가진 입소자가 있다면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대상자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 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열림 프로그램을 함께 함. 여기서 봉사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봉사대상자를 보조함.
-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두뇌훈련프로그램, 노래 부르기, 개와 함께 놀기, 아틀리에 촬영, 체조하기, 생일파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할 때 봉사자가 참여해 도와주거나 봉사함.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함.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조함.

2)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봉사는 가족적인 봉사가 많음. 자격증이 있는 봉사보다는 대화상대와 같은 작은 일들의 봉사를 함. 시장봐주기, 산책하기, 말벗해주기 등. 재가에는 건강한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 대다수임. 봉사단체에 소속된 봉사자는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대화 상대를 해주거나 청소, 시장, 약 타오기 등을 함.
- 재가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은 주로 주치의(가정의)가 담당함. 또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 정부에 신고를 하거나 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발굴해내고 있음. 봉사단체는 이런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됨.
- 인구의 고령화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퇴직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를 높이는 효과도 나타났음. 50대이상의 봉사자들은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하게 됨.
- 네덜란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봉사단체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단체가 운영하는 봉사활동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음.
- 시청이나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음. 시청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시민단체에 협조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만듦. 이런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비는 시청이 비용을 지원함. 반면 시민단체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청에 지원금을 요청하기도 함.

마.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 독일

- 시설의 전문인력 확충이 곧 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들이 자원봉사자와 봉사활동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임. 봉사자들을 매칭시키고,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봉사자 뒤에 있는 전문인력임.
- 활동이 자원봉사의 concept과 맞는가, 활동에 투입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활동인지, 그리고 매력적이며 기쁜 일인가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그래야만 봉사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음.

2)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자원봉사를 중학교부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중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 제공해 사회참여를 유도함. 또한 어릴적부터 부모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봉사활동의 친숙함을 보여줌. 따라서 어릴적부터 봉사활동의 홍보와 기회 제공으로 생활 속에서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바. 봉사활동에 따른 인정보상

1) 독일

- 개인 자원 봉사자 경비 상황에 관한 조세 규칙
자원봉사활동 비용(경비)은 봉사유형에 따라 다름. 일부 경우, 보조금 수당과 여행비가 상환됨.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봉사자가 자원봉사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에 의해 환급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운송 비용, 연료 등과 가장 관련이 있음.
- 공기업 또는 공익 법인의 아르바이트/활동에서 연간 최대 500유로의 소득이 면제됨.
- 봉사자를 위해 여름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의 행사로 자긍심을 넣어줌.
- 봉사를 위해 발생한 실비(교통비, 식비) 정도는 지급되고 있음.

2) 네덜란드

- 일반적으로 봉사자는 봉사를 위해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비용의 보상은 받음. 이것은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환산되기도 하는데 개인당 연간 최대 1,500유로까지 비과세 혜택을 줌.
- 보상의 다른 형태는 작은 선물, 일년에 한번 파티 혹은 바비큐, 재미있는 코스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 등이 있음.

사.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봉사자를 모집하는 방법

1) 독일

-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봉사자를 등록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봉사자가 자신의 재능과 관심영역을 프로필과 함께 등록해 놓으면 이런 유형의 봉사자가 필요한 시설이나 조직에서 관련된 정보를 보고 연락하도록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음.

2) 네덜란드

- 네덜란드도 봉사자 자신의 프로필을 봉사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피로필을 보고 필요로하는 시설이나 단체에서 연락취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